

## 철새 이동 AI 추가확산 반드시 막아내야

전국을 휩쓸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다. 축산방역당국에 접수되는 의심신고도 하루 1~2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군(軍) 인력까지 동원한 지난달 27일부터의 총력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도 창궐했던 고병원성 AI가 한고비를 넘겼다. 신고 벨이 8일째 울리지 않자 전북도는 4일 “위험단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긴장의 끈은 풀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는 고창 동림저수지에 머무르는 40여만마리의 철새 이동이 AI 추가 발생의 핵심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범으로 철새를 꼽는다. 철새 또는 철새와 접촉한 텃새에 의해 오리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추세라면 전남 영암호에서 이동한 가창오리는 동림저수지에서 20일, 금강호에서 20일가량 머문 뒤 북상할 전망이다. 동림저수지 10km 내에는 정읍시·고창군·부안군 등 3개 시군의 농가 35곳에서 가금류 154만8,130마리를 사육해 AI가 추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금강호 10km 내에는 군산시의 농가 7곳에서 가금류 7만8,490마리를 사육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인근 익산시에 대규모 육계농가가 위치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실 이번 AI피해 규모는 역대급이다. 지난해 11월16일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3월 0시까지 48일 동안 살처분된 닭·오리는 3,033만마리에 달한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전체 닭·오리 1억6,525만마리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다. 도내에서도 살처분된 닭이 187만5,000여 마리, 오리가 65만여 마리 등 총 252만4720마리에 달한다. 특히 김제 용지지역에서 발생한 AI로 살처분된 닭이 전체의 64%인 162만7,000마리에 이른다. 또 폐기된 달걀 수는 1,000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잠정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3천여만마리를 살처분한 전례는 없었다.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방역 비용만 지난 1일 기준으로 2천123억원이다. AI가 1~7월까지 195일 동안 이어졌던 2014년엔 1,396만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재래시장에 나가봐도 달걀 한 알에 500원 가까이 하고, 대형마트에서는 1인당 한판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야 당분간 좀 자제하면 된다고 하지만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영세상인들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AI가 강원도에서 또다시 야생철새로 인한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제는 역학조사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내도 철새 이동으로 인한 AI 추가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한다. 그래야 3,000여만마리의 가금류를 땅에 묻는 비극이 생기지 않는다.